

무이마을 주거환경 및 주거공간의 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Organization for Housing Environment in 'Moo-Yee Ma-Yul'

백 영 훈*
Baek, Yeong-houm
정 준 현**
Jeong, Jun-hyun

Abstract

This study has a object that is based on the clarification of the territorial space and spatial chracteristics on the historical village "Moo-Ye Ma-Yul", Sun-san, KyungBuck, Korea.

This village has sheltered since 500-600 years ago and is located geometrical on buffle area between Southen and Northen area of South Korea to be composed by two types of housing form : one is southen type and the other Northen. The housing scale was limmited with the ecinomical basement and is change rapidly on the quality of housing environments with the recently increased income.

The surveying term on the village was 9 days of October 18-22 and June 21-22, 1996 and March 29-30,1997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한 지역의 주거형식은 그 지역의 자연적인 환경과 문화적인 전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

화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문화지역 구분의 기본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농촌지역의 주거환경변화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기존주택의 개량과 환경개선사업등에 의하여 주도된 바 있으며, 이때 농촌지역의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표준주택' 혹은 '문화주

* 정회원, 대구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 정회원, 대구대 주거환경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택'이라는 주거형식을 지역적 특성과 생활적 특성을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양식으로 환경개선을 시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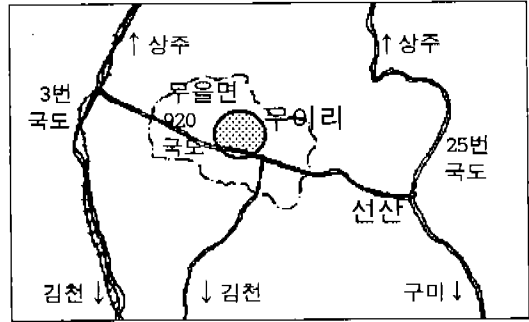
한편, 근래에 와서는 주민들의 자의에 의하여 주거환경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역시 종래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소위 현대적이라는 미명으로 도시 주거형식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지역의 주거 형태적 특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진적인 주거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선산군 무이 마을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의 구성적 특성과 전래 주거형식(민가)의 특성을 조사 분석함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 들어 무분별하게 들어 서고 있는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변화의 방향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조사 대상 지역인 선산군 무을면 무이마을은 약500년의 역사를 지닌 마을이다. 그러나 오늘날 마을의 주거환경 변화로 점차 마을의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에 관한 의미가 희박해지고 있으며, 이 지역의 전래 주거형식(민가)도 점차 사라질 현실적 상황에 있다. 그러나 생활적 측면에서는 공동체적 삶의 구심을 이루어 온 민속 문화적 내용이 일부 전승되고¹⁾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지역은 주거환경의 변화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유추되어 본 연구의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그림1). 그리고 연구 내용의 범위는 마을의 구성적 특성과 평면유형의 분석을 통한 주거공간의 구성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는 '96년 7월 21-22일에 걸쳐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96년 8월 18-22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 발표²⁾를 한 바 있으며, 그 후 '97년 3월29-30일에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 대상지역의 위치

II. 마을의 형성 배경과 공간적 특성

1. 마을의 형성 배경

선산군 무이마을이 하나의 유기적 생활환경체로써 형성된 배경을 자연지리적, 인문사회적, 생활경제적, 민속문화적 요소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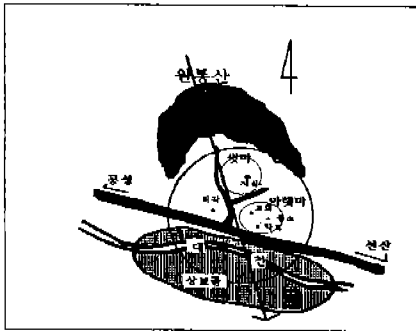
1) 자연지리적 배경

무이마을은 구미시에서 북서부 920번 국도를 따라 20여Km에 이르러 연악산맥의 끝자락인 해발 437M의 원통산(怨痛山)³⁾ 아래 자리잡고 있다. 특히 마을명칭은 원통산에 약수터가 있어 매일 일정한 수량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수동', '물골'이라 하였다고도 하며, 한편으로는 마을의 경치가 중국 복건성에 있는 무이구곡(武夷九谷)⁴⁾에 비유된다 하여 무이리(武夷里)라 하였다 한다.

마을은 원통산이 마을 뒤를 병풍처럼 감싸고 그 자락이 좌우로 길게 늘어서 있어 마을의 풍수 형국은 마치 '치(키)'⁵⁾의 형태와 유사하다 하여 '치혈'이라고 한다(그림 2). '치(키)'는 곡식을 까붙어 고르는 것이기에 재물과 상관⁶⁾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풍수형국론은 아랫마을이 '금반옥대'형이라 박씨는 그곳에 살수 없다고도 한다. 이

는 소반(금소반)에 '박'을 올려 놓으면 굴러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자연의 형상과 삶의 의미를 관련시키고 있다.

이러한 자연지리적 특성이 취락의 형상을 이루며, 자연지리적 조건은 주민의 공간유산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상징적 의미요소로 작용해 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 마을의 형국

2) 인문·사회적 배경

이 마을의 인문·사회적 배경은 입향조의 성씨와 마을의 성씨 분포 그리고 이들간의 인과관계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마을은 연안 전씨가 개척하였다고 하나, 지금은 100여 가구중⁸⁾ 연안 전씨는 23호이며 그 외 해평 황씨, 경주 최씨, 밀양 박씨, 경주 이씨, 남원 양씨, 김해 김씨 등의 각성으로 마을을 이루고 있다.

마을에는 무등서원이 효종 원년(1649)에 세워졌으나 고종5년(1868)에 회철되고 현재는 성암제(性庵齋)가 마을의 중앙인 서당뚝에 있다. 여기에는 성암 전좌명(性庵 田佐命), 옥산 이 우(玉山 李 瑀), 가정 전윤무(價亭 田胤茂)를 배향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는 성암 전좌명(1424~1521)의 효행을 기리는 정려각(사진 1)을 두어 효행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인문·사회적 배경은 지금도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적 삶의 터전으로서 유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사진 1) 마을 입구의 정려각 전경

3) 경제적 배경

주거형태는 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다시말해 그 지역의 전체환경 속에서 생활에 유효한 경지면적은 마을의 규모뿐만 아니라 생활 공간의 규모 및 생활 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특히 무이마을은 경작규모가 1ha내외인 영세농가⁹⁾가 대부분이다. 경작지는 마을 안의 '안들'과 마을 밖 대천을 끼고 있는 '상보들'의 벼농사가 주를 이루며, 최근에는 참외농사와 축산이 장려되고 있다. 또한 인근의 논공단지¹⁰⁾에 근무하는 주부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농가 소득이 증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득증대는 최근의 주거환경변화의 직접적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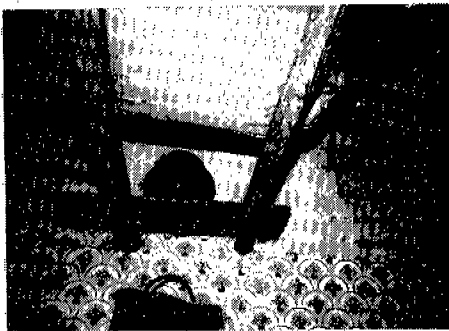
한편, '7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¹⁰⁾에 힘입어 마을회관건립(1977), 양수장건립(1981), 마을안길포장(1988), 무이교가설(1989), 마을진입로포장(1990) 등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생활환경의 변화가 가속화 되어 왔다.

4) 민속문화적 배경

무이마을도 전통적 민속문화가 주거생활의 저변을 이루어 왔으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러한 민속내용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 예로, 마을의 공동행사로 마을입구에 있던 당나무에서 엄숙히 거행되

던 동제가 6-7년전에 당나무가 쓰러진 후로는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마을 입구 효자각 앞에 그 흔적만 남아 있고, 그의례적 내용도 주민의 의식 속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생활화하여 오던 가신신앙도 대부분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 삼신신앙, 성주신앙, 텃주신앙이 일부 남아 그 맥을 보여주고 있다(사진 2).

특히, 이 마을은 벼농사에 바탕을 둔 무을농악의 중심지로서 오랜 역사의 깊이를 가지고 농악을 전승하여 오고 있으며, 이는 마을 주민을 하나의 공동체적 삶으로 엮어 주는 가장 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자의적인 조직인 초롱계가 있다. 이 초롱계는 관혼상제를 위한 것으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돼지계, 장남계, 반지계, 술계, 쌀계, 자녀교육계 등이 있어 마을 주민이 서로 돕는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정신이 유지되고 있어 생활적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맥이 전승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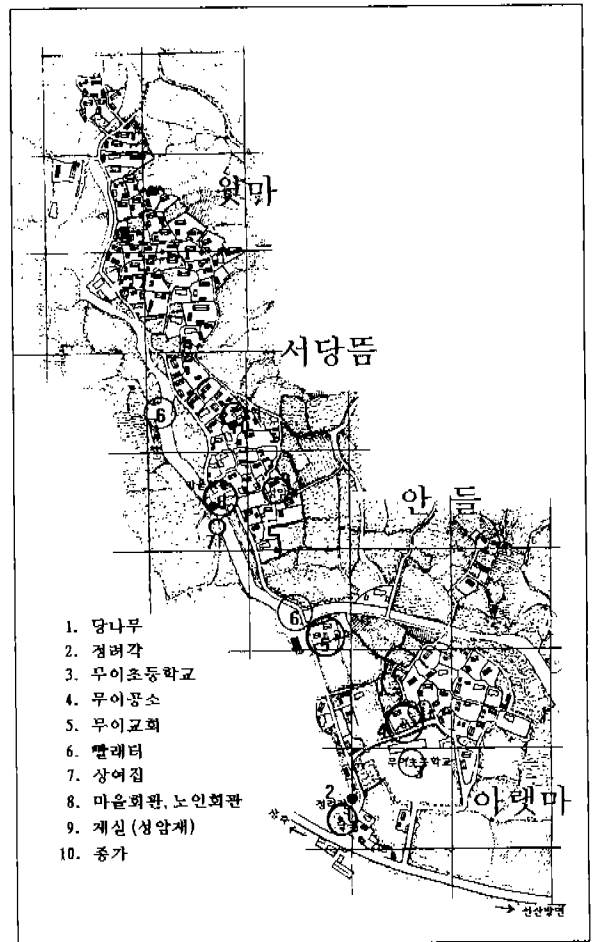
(사진 2) 황진규씨 맥의 성주신앙 모습

2. 마을공간이 구성적 특성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전형은 대개 집촌형태의 동성부락으로 입향조의 정주에 의해 풍수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지역 즉, 그 지역의 중심에 종가가 자리잡게 되고 점차로 후손이 성장함에 따라 작은 종가 또는 상민 등의 위계적 서열로 계층화되면서 하나의 마을

공간이 형성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무이마을은 종가를 중심으로한 반가의 위계적 질서보다는 지리적 공간성에 따라 비교적 비구조적 질서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구성은 마을안의 개울을 경계로 마을 윗부분을 '윗마', 개울이 있는 중간부분을 '서당뜸', 마을 입구 부분을 '아랫마'로 칭하며 영역화시키고 있다(그림 3). 이 마을은 '키'형국이라 마을의 중앙인 '서당뜸'은 재물의 변동이 거의 없고, 알곡이 오르내리는 바깥쪽의 '아랫마'와 안쪽의 '윗마'는 재물 상태가 변한다고 주민들은 믿고 있다. 다시말해 '키'에



(그림 3) 마을의 공간 구성적 특성

알곡이 오르내리듯 주기적으로 마을 전체 재물이 '윗마'와 '아랫마'로 들고난다는 것이다.

현재 마을의 변화도 '아랫마'가 가장 심하며, 그 다음이 '웃마'이며 중앙부분인 '서당뜸'은 비교적 정체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를 입증하는 듯하다. 그러나 '서당뜸'은 성암재와 마을 회관이 있어 마을의 상징적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한편, 마을 입구 정여각 앞에 마을 공동체의 민속적 상징요소인 당나무가 있었으나 지금은 쓰러지고 흔적만 남아 있고, 정려각의 효자비만이 마을의 역사성을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부녀자들의 공간인 빨래터는 마을 중간과 '웃마'에 있었으나 지금은 집집마다 상수도가 설치되어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도록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Ⅲ. 주거공간의 구성적 특성

1. 주거공간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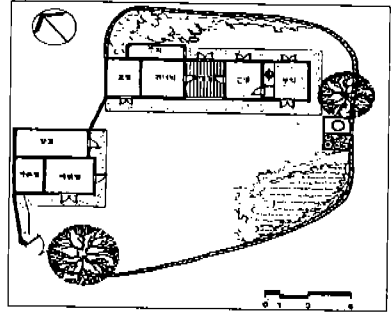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가옥의 배치는 그 영향요인이 자연환경에 따른 대응, 생활내용, 내·외부생활의 공간활용, Privacy유지, 경제적 규모 및 필요한 건물의 동수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민가의 배치는 좌향을 중요시하였다. 좌향은 그 건축물을 집터에 앉힘으로써 생기는 건축물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향이 결정된다. 무이마을의 민가의 배치는 안채를 마을의 향에 따라 동남향으로 배치하고, 아랫채와 부속채를 두는 경우는 별동형으로 서쪽에 배치하는 것이 보편적¹¹⁾이다.

그리고 아랫채를 마련할 형편이 안될 경우는 안채에 방 1칸이 늘어난다. 아랫채는 보통 3칸 규모로 방, 마루, 두지로 구성되며, 방은 주로 양잠용으로 이용되었으나 양잠을 치지 않아 창고로 활용되고 있다. 이 마을에 유일한 한 채의 'ㄱ'자형 주택은 20여년전에 아랫채를 세울 형편이 되지 못하여 방 한칸을 달아 낸 경우라 한다.

(그림 4)는 이 마을에서의 배치유형의 대표적인 예이다. 아랫마을의 공소 우측에 위

치하고 있는데, 비교적 넓은 대지위에 안채와 사랑채가 'ㄱ'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림 4) 배치형태의 예 (황진구서채)

2. 평면유형의 분포

경상북도 민가의 평면유형은 북부지역에서는 까치구멍집계열의 겹집형이 일반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중부지역으로 내려오면서부터 반겹집, 퇴간집, 홑집 등 여러 형태의 평면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며 남부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점차 홑집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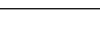

무이 마을은 전형적인 민촌인 까닭에 제실인 성암재만 골기와집일 뿐 민가는 모두가 흙벽돌로 지은 토담집이었다. 지붕은 원래 모두가 초가지붕이었으나 현재 초가는 한 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모두 골슬레이트나 왜식기와로 개량되었다.

민가의 평면은 아랫채나 부속채로 사용되는 겹집계열의 2채와 후대에 건립된 ㄱ자형 한 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일자형의 홑집계열이었다.

평면 유형¹²⁾은 뒷마루나 대청이 없는 집, 봉당만 있는 집, 봉당이 대청으로 구성된 집, 뒷마루가 발생한 집, 뒷마루와 대청이 혼합된 집 등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이 남북으로는 경북의 중부지역이면서 동서로는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에 따른 것으로 북부와 남부, 낙동강 동안과 서안의 완충지역에 위치한 까닭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이 마을의 민가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의 하나는 도투마리집이 더러 발견되고 있는 점인데, 북부지역에서 나타나는 겹집 계열의 도투마리집과는 달리 홑집의 도투마리집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 한 점이다.

과거 이 마을은 강수량도 적고 수리 시설도 좋지 않았다. 따라서 구미공단, 공성공단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대부분의 주택들은 전통적인 토담집의 형태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들어 경제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현재 이 마을도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현대식 건물이 건립되었거나 건립 중에 있는 상태이다.

평면유형		평면 예	분포
재래주택	'-' 자형	무퇴형	 10 (11.0)
		봉당형	 5 (5.5)
		전퇴형	 7 (7.7)
		대청형	 36 (39.6)
		혼합형	 16 (17.6)
	'-' 자형	대청형	 1 (1.0)
		봉당형	 아랫채 (2예)
현대주택	개량형	(3예)	16 (17.6)
	조립형	(2예)	
	양옥형	(11예)	
계			91 (100)

(그림 5) 평면유형의 분포

3. 평면유형별 공간구성의 특성

이 마을의 주거형태를 전래적인 민가의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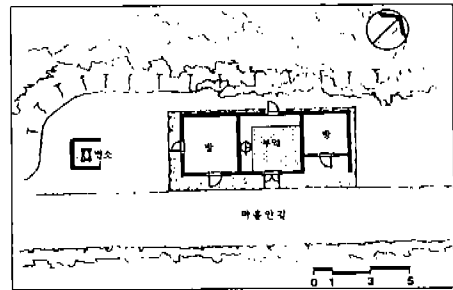
면유형과 현대적인 평면유형으로 구분하고 대표적인 평면형의 사례를 통해 이 마을의 주거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1) 전래주택 평면유형의 예

(1) 김선배씨 가옥

마을 어귀의 비각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담장 없이 도로변에 동향하여 자리잡고 있다. 얇은 토기단위에 흙벽돌로 벽체를 세운 후 3량가의 가구를 얹고 골슬레이트로 팔작지붕을 이었다.

평면은 부엌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둔 도투마리집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경북 북부지역의 도투마리집은 주로 겹집의 형태인데 비해 이 집은 홑집의 도투마리집 형태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한 평면이다. 이외에도 도투마리집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평면이 몇채 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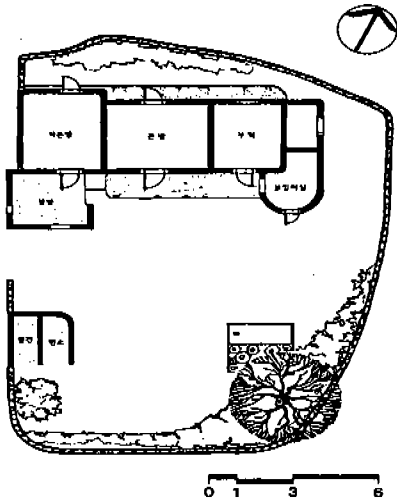


(그림 6) 김선배씨 가옥 평면도

(2) 이음전씨 가옥

마을 안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이 마을에서 원형적인 민가의 형태로 추정되어진다. 현재 지붕은 슬레이트로 개량되어 있으나 원래는 초가지붕의 토담집이다. 평면은 좌로부터 작은방, 큰방, 부엌, 두지가 연결되어 있다. 우측의 두지는 반간규모인데 전면은 등그스름하게 다듬었으며 현재는 보일러실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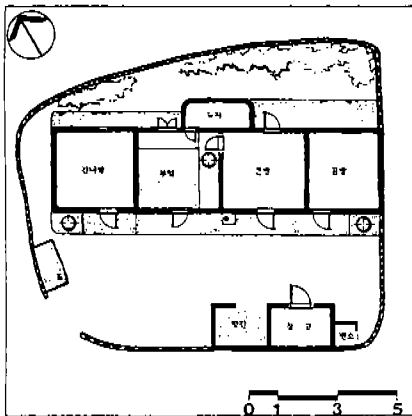
좌측방의 전면에는 봉당을 두었는데 봉당의 바닥은 온돌방의 높이만큼 흙을 쌓았다. 봉당의 주위에는 동쪽으로 트인 쪽을 제외한 3면을 토벽으로 쌓았으며 마당을 향한 쪽에는 창을 뚫었다.



(그림 7) 이음전씨 가옥 평면도

(3) 전이명씨 가옥

동쪽들의 건너편 외따로 떨어져 있는 4채의 가옥 중하나이다. 이 가옥은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초가집인데 현재는 비닐로 지붕을 덮어둔 상태이다. 가옥의 주위에는 흙벽돌로 담장을 쌓아 공간을 구획하였는데 마당 앞쪽에는 담장에 붙여 역시 흙벽돌로 쌓아 만든 2칸 규모의 헛간채를 두었다. 안채는 흙벽돌로 지은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토담집이다.



(그림 8) 전이명씨 가옥 평면도

평면은 좌로부터 건너방, 부엌, 큰방, 골방이 연결되어 있으며 부엌과 큰방의 후면에는 작은 두지를 시설하였다. 부엌을 가운데에

두고 양쪽에 방을 둔 형태의 집을 도투마리 집이라 하는데, 이 집은 도투마리집의 평면에서 우측에 방이 한칸 더 붙은 도투마리집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 평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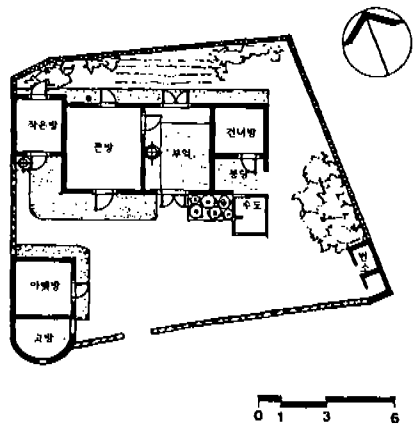
(4) 남정분씨 가옥

서쪽 도로변에서 우측으로 난 골목의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골목쪽으로 트인 입구를 들어서면 정면에 안채가 남향하여 자리잡고 있으며 좌측의 도로변에는 아랫채를 두어 전체적으로는 ㄱ자형의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안채의 평면은 안방과 부엌을 중심으로 좌, 우에 방 한칸씩을 두었는데 좌, 우의 방들은 반간 가량을 뒤로 물리고 전면에는 봉당을 두었다.

3량가의 토담집인데 지붕은 원래 초가였으나 현재는 골슬레이트로 팔작지붕을 이었다.

아랫채는 고방 1칸과 아랫방 1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방의 전면이 길모퉁이에 위치한 관계로 전면을 등그스름하게 만들었음이 이채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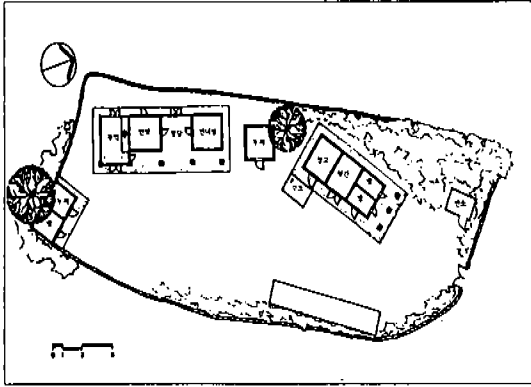


(그림 9) 남정분씨 가옥 평면도

(5) 양팔임씨 가옥

이 주택은 남북으로 긴 장방형의 대지 위에 동향한 안채를 중심으로 하여 좌, 우로 두지채와 아랫채가 방사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안채는 좌로부터 부엌, 안방, 봉당, 건너방이 연결되어 있는데, 부엌을 제외한 3칸의 전면에는 되는 없이 퇴주만 세워 뒷간을 형성하였다. 좌측의 두지채는 온돌방 1칸과 두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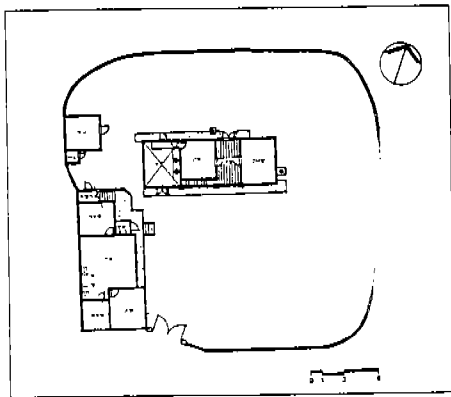
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좌측방에는 할머니가 거처하고 있으며 우측의 아랫채는 잠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10) 양팔임씨 가옥 평면도

(6) 황진일씨 가옥

이 주택의 안채는 4칸 규모의 일자형 홀집이다. 평면은 좌로부터 부엌, 안방, 마루, 작은방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엌 상부에는 다락을 설치하였으며, 안방의 전면에는 좁은 틈간을 두고 전면에는 4짝 미서기 유리창문을 설치하였다. 대청 상부에는 시렁을 설치하여 물건을 올려놓게 하였는데 현재 시렁상부에는 성주단지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랫채는 현대식 주택으로 건립하였으며 일상생활은 그곳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제사는 안채의 안방에서 모신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이 마을의 주거환경변화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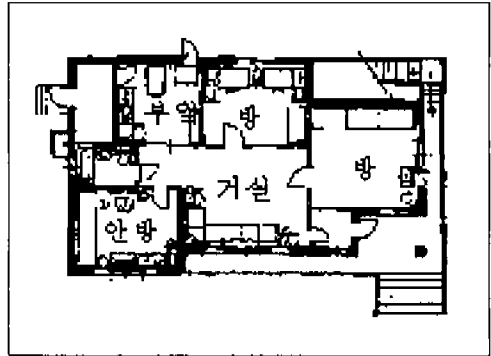


(그림 11) 황진일씨 가옥 평면도

2) 현대주택 평면유형의 예

여기서 현대식 주택이란 재래 민가의 형태와 구분하기 위하여 칭한 것이다. 민가와 구분되는 주거형태는 한옥을 개량한 개량주택(3예), 판넬·조립식 주택(2예), 양옥(도시형)주택(11예)으로 구분하였으며, 여기에서는 1층 양옥주택만 소개한다.

(그림 12)는 마을중앙의 '서당뜸' 아랫쪽에 위치해 있다. 주택 신축을 위해 단위조합에서 용자하였으며 5인 가족(할아버지, 부부, 자녀2)이 생활하고 있다. 이 주택의 평면 구성은 방3개, 거실, 부엌, 화장실, 현관, 다용도실로 구성된 도시의 대중주택의 거실중심 평면유형(13)과 일치한다. 이 마을에서의 이러한 유형의 주택 대부분은 평면 구성적 면에서는 이 지역의 건축적 특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림 12) 황영옥씨 가옥 평면

IV. 맺음말

선산군 무이마을은 오랜 역사성을 지닌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며, 비교적 전통적인 민가의 유형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주거공간의 변용과 함께 새로운 주거유형이 마을에 혼재되면서 전형적인 전통마을의 특성을 점차 잃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 무이 마을의 생활환경의 특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생활환경의 형성은 자연지리적 조건, 생활경제적 여건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었으며, 일부 민속적인 내용도 생활환경의 구성적 요소로 작용한 듯하다.

2) 마을은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키'형국이며, 마을 공간은 '윗마', '서당뚝', '아랫마'로 영역화 되어 있다. 마을의 변화는 마을 안쪽인 '윗마'와 마을 입구의 '아랫마'가 두드러진 현상을 보이며, 마을의 중앙부분인 '서당뚝'에는 성암재와 마을회관이 있어 마을의 상징적 중심을 이루고 있다.

3) 주거공간의 배치는 안채를 마을의 향인 동남향으로 배치하고 아랫채는 별동형으로 서쪽에 두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는 민속적 관념이 주거배치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4) 평면유형은 뒷마루나 대청이 없는 형, 봉당만 있는 형, 봉당이 대청으로 구성된 형 등 여러 가지 평면유형이 나타나고 있어 민가의 발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도토마리집의 변형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이 남북으로는 경북의 중부지역이면서 동서로는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북부와 남부, 낙동강 동안과 서안의 완충적 지역에 위치한 까닭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으로 이 지역은 지리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민가의 다양한 유형 분포를 보이거나 이러한 민가의 형태는 점차 소멸 내지 변형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이 지역의 주거환경의 변화는 곧 마을의 역사성 소멸, 민속문화적 요소의 상실, 주거공간의 지역적 특성의 상실,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화, 산업화, 서구화의 기운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나 전통적인 생활환경의 모습이 그대로 사라져 버리기 전에 전통생활문화에 명맥을 이을 수 있도록 기록해 두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1) 이 마을은 특히 '무의 농악'이 유명하

며, '96 민속경연대회 농악 분야에서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의 민속적내용은 일부 그 유형을 발견할 수 있으나 대부분 주민들 의식속에 잔존할 뿐 그 실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2) 정준현, 백영홍, "무이마을 주거환경의 공간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7권, 81-86쪽
- 3) 마을 뒷산의 원통산(怨痛山:일명 元通山)은 임진왜란때 이곳에 성을 쌓고 싸울 준비를 갖추었으나 원통하게도 한번 싸워 보지도 못하고 패하였다 하여 원통산이라고 하였으며, 현재도 성의 옛모습이 조금 남아 있다.
- 4) 중국 복건성 충안현에 있는 무이산의 아홉구미계곡의 경치를 노래한 송나라 주희(朱熹)의 九曲歌.
- 5) 곡식에 섞인 먼지, 쪽정이를 골라내는 농기구의 일종
- 6) "우리가 오늘까지 이래 유지해 나온 것도 요 산(山) 덕(德) 아인가"라고 말하는 마을 노인들의 말에서와 같이, 이들에게는 자연적 환경요소가 거주환경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7) 예로부터 '조선인재반재영남, 영남인재반재일선'이라하여 선산 지역은 선비가 많은 고장으로 칭송되어왔으며, 이때 선비 혹은 인재는 단순히 문장이 뛰어난 문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금력 등에 굴하지 않고 절의를 지킨 분들을 뜻한다. '일선'은 '선산'의 옛지명이다. 「一善志」, 1983
- 8) 선산군, 「선산통계연보」, 1995
- 9) '95년도 「선산통계연보」에 의하면, 선산 군민의 가구당 경지면적은 1.4ha로 집계되어 있다.(구미시, 「선산통계연보」, 1995)
- 10) 경상북도, 「경북 마을誌」, 1991, 778-779쪽
- 11) 마을 이장에 의하면, "아랫채를 서쪽에 두지 않고 동쪽에 두어 해를 입

- 은 본보기가 있다. 그래서 요즘도 아랫채와 부속채를 지을 때는 신중을 기한다”고 하였다. 이는 ‘동쪽에 있는 대장군을 막아서는 절대 안된다’는 민속적 내용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한다.
- 12) 민가의 평면형태분류는 지역적, 평면 형상적, 간의 구성형태 등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 13) 정준현, 도시 단독주택의 공간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 논문, 1993. 30-31쪽
 - 14) 선산군, 일선지, 1983.
 - 15) 구미시, 선산통계연보, 1995.
 - 16) 경상북도, 경북마을지, 778-779쪽.
 - 17) 강봉진, 한국건축의 전통과 계승에 관한 소고, 창립30주년 기념논문집, 대한건축학회, 1975.
 - 18) 조성기, 한국남부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19) 장보용,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제, 1981.
 - 20) 백영홍외 15인, 낙동강유역사연구,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5.
 - 21) 김택규외 5, 한국의 전통마을⑧:나라 농사와 풍물에 사는 물골, 문화체육부·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6